“국민 삶의 질 높이도록 경제활성화에 힘 써달라”

원행 스님, 정세균 총리에 당부
17일 인사차 예방… 환담 나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경제활성화를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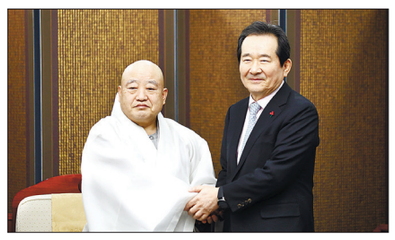
원행 스님은 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14일 취임한 정세균 총리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종로구 국회의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곳(조계사)에서 스님들을 워낙 많이 뵈었기 때문에 가족을 만나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왔다”고 인사했다.

이에 원행 스님은 “국회에서 큰 소임을 맡으셨는데 총리직을 수락하셔서 앞으로 풀어갈 일이 많으실 것 같다”고 화답했다. 스님은 이어 “총리께서 사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 문제도 풀어야겠지만 국민들의 생활과 연결된 경제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총리는 “경제 활성화에 가장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려 한다. 또한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야 하는데 현재 과도하게 갈등이 드러나 있어 통합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그간 종교지도자들께서 국민들의 화합에 기여해주신 것처럼 스님들께서도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이에 공감하면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 있지만 협치가 필요할 때 종교도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불교도들의 뜻을 모아 기여하겠다. 오는 4월 있을 총선도 잘 치러지도록 총리님께서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공개 예방은 5분가량 진행됐으며, 이후 예방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호섭 기자**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승가교육기관 올해 안에 조정”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 신년회견



상반기 내 각계기관 의견 청취
공청회 · 세미나 등 거쳐 案 도출
‘근본을 갖추는 승가교육’ 강조
“출가정신 바탕, 교과내용 조정”

조계종 교육원이 출가자 감소로 인한 승가교육기관 조정을 올해 안에 결론 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교육원 사업 계획을 밝혔다.

진우 스님은 승가 기초 · 기본교육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스님은 “하심하는 초심수행자 시절부터 부처님의 정법을 정확히 알아갈 때 환희심과 신심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통한 감동으로 다시 사람들을 감화시킨다”면서 “기초 · 기본교육 재점검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학인 스님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이 정확히 배어들 수 있도록 교과 내용을 재편집하고 교과목을 재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원은 기본교육 필수 교과목인 포교 실천분야 7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전환한다. 또한 ‘초기불교의 이해’, ‘초기불전 I’, ‘한문불전 강독 I ~Ⅷ’은 학년별 1회에 한해 심화과목으로 중복선택이 가능토록 했다. 아직 계획단계이지만 종단 통일본 ‘불교 개론’ 검인정 교과서 제작도 추진한다.

진우 스님은 “지난해 전국 승가대학 간담회에서 교과목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교과목을 줄여도 기본 교육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봤고, 이에 맞춰 재편성하기로 했다”면서 “출가정신에 입각해 근본을 놓치지 않는 승가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맞춰 교과목의 내용과 과정을 수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출가자 감소의 여파인 승가교육기관 조정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승가교육기관 정비는 현재 종단 승가교육 종책 분야에서 최대 현안이다.

현재 불교계는 ‘출가 절벽 시대’를 맞았다. 한 해 출가인원이 120명 선에 머물고 있으며, 이마저도 감소 추세다. 조계종은 현재 사찰승가대학과 동국대 · 중앙승가대 등 17곳의 사미 · 사미니 기본교육기관을 운영 중이지만, 적정 교육 정원을 채우는 기관은 많지 않다. 앞선 6~7대 교육원 집행부에서 기관 수 조정을 거론한 적이 있지만, 본사 · 교육기관 등의 입장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진우 스님은 “그동안 승가교육기관 조정에 대한 당위성은 공감해지만, 이에 대한 절차를 밟은 적은 없었다”면서 “우선적으로 승가교육기관 학장, 강사, 학인 스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열고 공론화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승가교육기관 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대한 전체 종도들의 의견을 모아서 안(案)을 도출하려 한다”면서 “일부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상반기 내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마치고 올해 안에 결론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원은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강화, 출가 장려를 위한 사업들도 꾸준히 이뤄진다.

지난 2018년 시작된 승가결사체는 포교, 대사회활동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결사공동체로 올해에는 27개로 확대돼 운영된다.

출가 장려를 위해서 교육원은 출가사이트를 채팅 상담과 모바일 기능을 도입해 리뉴얼하며, SNS 홍보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출가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단적 T/F도 구성을 제안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진우 스님은 “출가자 확대는 교육원만이 아니라 종단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출가자 확대를 위한 T/F 등 전문조직, 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우 스님은 승가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승가의 기초 · 기본교리임을 분명히 했다. 스님은 “올해 교육원은 승가의 ‘전통교육방식’을 보존하면서 현대 사회에 빠르게 변해가는 정보들을 취합해 승가교육에 조화롭게 반영해 나가겠다”며 “교육원은 근본을 놓치지 않는 승가교육으로 사회가 신망하는 불교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7월에 첫 포교신도단체 결집대회”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신년회견

조계종 포교원이 신행혁신운동의 실천을 위해 ‘5대 수행법’ 보급에 본격 나선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1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포교원 사업계획을 밝혔다. ‘신행혁신으로 생동하는 불교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7월 포교 · 신도단체 결집대회를 비롯한 5대 수행법 보급계획이 발표됐다.

조계종 포교원은 포교원 사상 처음으로 포교 · 신도단체 결집대회를 열고 5대 수행법 보급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조계종 포교원은 7대 집행부 임기동안 신행혁신운동으로 계율, 간경, 염불, 참선, 보살행의 5대 수행법을 정립, 수행일지 및 수행법 안내서 발간 등을 진행해왔다. 2019년에는 포교원, 중앙신도회, 신도단체 구성원들이 5대 수행법에 맞는 수행처를 순례하는 ‘수행바라미’를 통해 수행법 보급을 시작한 바 있다. 7월 말 개최 예정인 포교 · 신도단체 결집대회는 한국문화연수원을 비롯한 다수의 장소가 대상지로 논의 중이다. 또 10월 진행예정인 경승결집대회서도 5대 수행법 보급을 주제로 이뤄진다.

포교원은 이에 앞서 3월 포교 · 신도단체들과 월례회의를 도입해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3월과 11월 포교신도단체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며 5대 수행법 관련자료를 신행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10월 진행되는 〈불교성전〉 봉정과 함께 신도용 우리말 의례문 보급도 신행혁신운동의 연장선이다. 우리말 의례문은 공양과 문병, 문상, 성년, 임종, 결혼 등 관혼상제에 맞는 10종의 생활의례로 생애주기에 맞게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지홍 스님은 “신행혁신운동은 생활수행이란 중요한 불교 신행문화의 변화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7대 집행부에만 이러한 운동이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행문화 변화를 반영하고, 이끄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행혁신운동은 포교 · 신도단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조계종 포교원은 어린이청소년 포교와 청년대학생 포교도 ‘5대 수행’ 보급을 골자로 전개한다.

먼저 어린이청소년 포교는 어린이청소년위원회, 기획위원회, 실무위원회간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포교종책안을 마련한다. 6월에는 지도자 대상 연수를 진행하여 각 단체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청년 대학생 포교는 3월 5대 수행 관련 신행영상 공모, 8월 대학생 5대 수행 실참을 추진한다. 이밖에 2월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와 공모 협의해 9월 대학법당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2019년 원주지역을 시작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공기관 직장직능 불자회 추가 결성 지원과 5대 수행법 보급도 이뤄진다.

이 밖에 포교지도자들의 데이터도 통합관리 추진된다. 4월 포교사와 불교어린이지도사, 불교청소년지도사, 불교상담심리사, 불교명상지도사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정리를 시작으로 6월 통합종무프로그램에 입력, 통합관리된다. 이와 함께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는 뉴미디어 콘텐츠 확산에도 나선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포교콘텐츠 통합플랫폼이다.

포교콘텐츠 통합플랫폼은 포교 자료를 한 곳에서 제공해 사찰과 포교하는 신도들이 손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2019년 신행정보센터 구축이 추진됐지만 모바일 환경 대두에 따라 계획이 변경됐다.

뉴미디어 포교를 위해 2019년 제1기 불교크리에이터 위촉으로 시작된 불교콘텐츠 확산 계획도 꾸준히 진행된다. 5월 2기 불교크리에이터 위촉과 함께 6월 1차 작가 템플스테이, 9월 2차와 3차 작가 템플스테이, 10월 작가 네트워크 파티 등이 이어진다.

지홍 스님은 “포교콘텐츠위원회를 통해 다년간 불교콘텐츠 양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UCC 공모사업 등을 통해 기존 성과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5대 수행법’ 보급 일환으로 개최
어린이 · 청소년 포교 적용 계획
생활 밀접형 ‘우리말의례문’ 보급
포교콘텐츠 통합플랫폼 구축 추진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양치후 먹었더니 식중독·배탈·설사가 없어지는 치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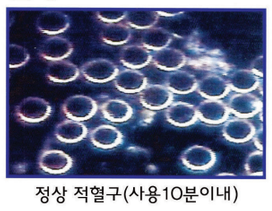
원래의 세정목적 외에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대장균(식중독균), 포도상구균(화농성세균) 99.9% 정균 감소 가능과 탈취 75%, 음이온 134cc, 원적외선방사 90.2% 의 기능으로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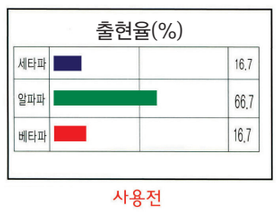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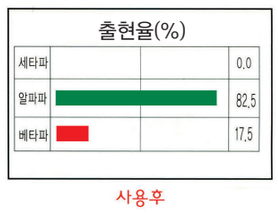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체험수기 개발자인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BLOOD MATE®사용후 6년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단 한번도 몸살, 감기를 앓아누워본 적이 없으며 안경을 써야 신문을 봤는데 현재는 안경없이 신문을 보고 코막힘이 없고 가래나 누런코도 나오지 않습니다.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비듬, 발뒷굼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특히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화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을 개선하는 효과

BLOOD MATE® ●강비누:120g 개당 25,000원 ●순비누:120g 개당 10,000원

양치후 뱉어내지않고 먹었더니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지고
숙취에 먹었더니 속이 편안해지며 술이 깨면서 정신이 맑아진다.

ORAL MATE®(치약)는 구강건강(잇몸 붓는것, 피나는것, 아픈것, 이시린것 등)은 기본이고 잇몸이 튼튼하고 치태가 끼지않고 구취가 없으며 하루종일 입안이 개운합니다.
식후에 바로 양치하고 먹었더니 속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ORAL MATE® 치약 120g 할인가 개당 15,000원

위와같이 BLOOD MATE®, ORAL MATE®가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공산품인 세정용 비누가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의약외품인 치약이 배탈, 설사, 식중독이 없어지고 구강건강을 지켜준다면

이는 식약처가 과대, 과잉광고로 단속을 하여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여 오히려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지원, 보호,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요 국가 산업발전, 해외수출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